#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월간 동향

Vol. 11
2019년 09월호
www.northernlogis.kr

**발간년월** 2019년 09월(제11호) **발행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주 소** (25798)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자료문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 **담 당** 물류연구기획팀장 **총 괄** 이사장 **Tel** 033-522-6503 **Fax** 033-522-6505

NLRSC

*Monthly Newsletter vol. 11*

제34회 동해무릉제
2019년 10월 4일(금)~6(일)

## Contents


- **기고문 I**
  - ▶ 백복령에서 동해를 보다
- **기고문 II**
  - ▶ 북방경제시대, 환동해권 동해직할 세관 지정의 필요성
- **동해·묵호항 주요 이슈**
  - ▶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
- **항만·물류 통계동향**
  - ▶ 극동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주변국 국제 동향**
  - ▶ 러시아 동향
- **정정 안내**
  - ▶ 정정 안내

# 기고문 I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심 규 언 이사장**

## 백복령에서 동해를 보다

**심 규 언** 동해시장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이사장

정선 임계에서 백복령을 넘어 오는 길에 정상에서 동해를 내려다 보며 상념에 잠겨본다. 두타산과 청옥산을 가운데 두고 국도와 지방도를 고리 모양으로 이어 붙인 길모양새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계절의 사연을 담은 길인 듯도 싶다.

동해시민의 식수원인 달방댐, 조선 시대 정조의 어명으로 단원 김홍도가 그린 금강사군첩에 무릉계의 그림이 남아 있는 두타산 무릉계곡, 산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물산들이 한데 모이는 200여 년 전통의 북평민속장,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북평산업단지, 동해자유무역지역,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한 추암 촛대바위, 출렁다리, 능파대, 3단계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항, 재창조 사업이 한창인 묵호항과 어부의 삶과 정취가 묻어나는 논골담길, 그리고, 화마의 아픔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망상오토캠핑 리조트와 망상해변 등 동해시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려나가야 하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그 옛날 백복령은 아마도 소통의 길 이었을 것이다. 백복령이 소금을 나르던 상업공간이든, 물류통로이든,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고리였을 것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분들은 이렇게들 이야기 하곤 한다. 삶의 애환과 스토리가 있는 공간이자, 그 옛날 활성화되었던 항만도시의 명암이 교차되는 공간으로 바로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동해발전을 그리는 과정에서 조바심이 앞서서 때론 큰 도시를 닮아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농촌이 도시를 따라하면 농촌은 황폐화 해지고, 섬이 육지를 따라하면 섬의 미래는 없다라는 세간의 진리가 뇌를 스칠 때 다시금 깨우침으로 자성하곤 했다.

최근 우리지역에도 시민의 노력과 성원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부사업들이 반영되어 동해시 발전의 동인이 되는 소식들이 많이 들린다. 그저 시장으로서 감사할 뿐이다.

LS전선 2공장 증설 유치, 동해콜드체인 구축사업, 노후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묵호항 재창조 사업,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사업,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사업, 동해항 3단계 사업, 어촌 뉴딜 300사업 등 미래 동해시의 살림살이 기반이 될 특화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할 SOC부분도 확충될 예정이다. 달방~백복령간 도로건설 확장 예산반영, 동서6축 SOC의 중요성 부각, 12월 KTX 동해 연장, 강호축(강원~호남)과 중앙선(제천)-태백선(영월~동해) 철도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혁신도 기대된다. 즉, 강호축과 연계는 동해시 발전과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물 들어 올 때 노 젓는다”고 새로운 성장의 기로에 서있는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정체된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할 때이다. 사람과 물류가 넘나들던 백복령에서 동해시의 희망을 바라보며, 사람이 중심되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도시 동해실현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엄 광 열 이사**

## 북방경제시대, 환동해권 동해직할세관 지정의 필요성

**엄 광 열** 경제학박사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이사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그동안 문화, 스포츠, 무역부분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특히 물류분야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 중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의 일환인 선도개발구역지정과 자유항제도 지정은 무역과 투자가 이어져 새로운 발전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동방경제포럼 개최로 이어져 대외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도 일대일로 정책추진으로 동북진흥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경제구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원도도 통일북방경제시대 구상 아래 내륙과 항만의 조화라는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신북방정책 궁극적 목표는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 일본 등과 자원, 교통, 물류, 에너지 등의 물적 교류의 증가 및 관광 등 인적 교류의 급증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 중심에 서있는 동해·묵호항에 신북방정책을 견인하고 북방경제권 국가들과 물적 교류,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전진기지 항만육성을 요구한다.

동해·묵호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몽골, 일본 교역의 최적지로서 향후 환동해권 물류중심 항만으로 급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해·묵호항은 배후시설과 항만인프라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하고 견인하는 북방 제1항만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조속히 재정립되어야 하는 산적한 과제도 안고 있다.

또 다른 과제로는 이들 국가와 교역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관세행정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이라는 큰 틀에서 신북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기한바 있다.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동해·묵호항의 물동량 증가로 이어져 현재 관세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해세관은 북방교역 전지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환동해권의 중요 세관으로 부각될 것이다.

현재 동해세관은 통관과 검사업무, 조사 및 단속, 심사, 화물과 항만감시 등 관세행정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다. 물동량 증가에 따라 관세행정 수요가 급증하면 현재의 조직과 체계 및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북방교역 전지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환동해권 중심 세관으로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자명하다. 즉, 물적, 인적 교류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해세관의 역할 및 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동시에 전략적 관세행정지원을 위해서는 동해세관을 중심으로 강원권 세관을 잇는 환동해권 관세행정벨트의 구축도 필요하다. 동해세관의 관세행정서비스 역할 및 방향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 강원북방권 관세행정벨트 구축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신북방정책의 실현에 따른 물적, 인적 교류의 증가와 동해·묵호항의 배후 및 인프라 확충은 환동해권 관세행정 수요를 가져오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 관세행정의 지원을 위한 현재 동해세관의 동해직할세관으로의 개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동해세관이 동해직할세관으로 승격이 되면 현재의 대구본부세관의 산하세관에서 관세청 직할세관으로 한 등급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 이는 종전의 대구본부세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사 및 예산의 집행권을 확보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5개 본부세관과 1개의 직할세관(환황해권 중심 평택직할세관)을 두고 있다. 동해세관의 역할과 기능도 기존의 업무영역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업무들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동해세관의 대폭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북방교류의 급진과 항만 인프라 및 배후시설의 순차적 개발과 확충 등 동해·묵호항의 여건조성과 기반구축이라는 당면과제들이 조속히 정비되어야하며, 동해직할세관으로의 개편은 조직 구성과 함께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들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로서 동해·묵호항이 향후 물동량 증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와 함께 환동해권 관세행정 수요증가와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동해직할세관의 유치는 당연한 논리가 될 것이다. 소극적 관세행정이 아닌 적극적 관세행정을 요구해 본다.

# 환동해 거점도시회의[1)]

## ■ 경제활성화와 우호증진을 위한 환동해권 도시 간 회의

환동해 거점도시회의는 환동해권시대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동해연안의 도시인 한국의 동해시, 속초시, 일본의 요나고시, 사카이미나토시, 중국의 훈춘시가 교류 분위기를 넓혀가면서 공동발전의 실천을 위한 거점구축 및 미래구상 등에 대한 회의를 하고자 1994년 처음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회의는 환태평양 시대를 대비하고 환동해권에 위치한 도시들 간의 우의증진과 상호협력을 굳게 다지기 위함과 지방단위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인접국가의 지방도시간 상호협력 증진과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에 강력한 교류·협력체재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도시 간의 모임이다.

현재 환동해 거점도시회의는 한국의 동해시, 속초시, 포항시, 중국의 투먼시, 옌지시, 훈춘시, 일본의 돗토리시, 사카이미나토시, 요나고시, 러시아의 나호트카시, 하산시, 블라디보스톡시 총 4개국의 12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있다.

**환동해 거점도시회의 개최 연혁**

| 구 분 | 개최일 | 장 소 | 구 분 | 개최일 | 장 소 |
|---|---|---|---|---|---|
| 제1회 | ‘94. 10. 25 |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요나고시 공동개최 | 제13회 | ‘07. 08. 25 | 중국 훈춘시 |
| 제2회 | ‘95. 10. 17 |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요나고시 공동개최 | 제14회 | ‘08. 08. 27 |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요나고시 공동개최 |
| **제3회** | **‘96. 10. 02** | **한국 동해시** | 제15회 | ‘09. 08. 19 | 한국 포항시 |
| 제4회 | ‘97. 10. 09 | 한국 속초시 | 제16회 | ‘10. 08. 25 | 중국 옌지시 |
| 제5회 | ‘98. 09. 20 | 중국 훈춘시 | 제17회 | ‘11. 08. 25 | 일본 돗토리시 |
| 제6회 | ‘00. 08. 18 | 중국 옌지시 | 제18회 | ‘12. 10. 05 | 한국 속초시 |
| 제7회 | ‘01. 18. 23 |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 제19회 | ‘13. 07. 05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
| 제8회 | ‘02. 10. 10 | 한국 속초시 | 제20회 | ‘14. 08. 20 | 중국 투먼시 |
| 제9회 | ‘03. 09. 23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 제21회 | ‘15. 08. 07 |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
| 제10회 | ‘04. 09. 01 | 중국 투먼시 | **제22회** | **‘16. 10. 07** | **한국 동해시** |
| 제11회 | ‘05. 08. 30 |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요나고시 공동개최 | 제23회 | ‘17. 09. 09 | 러시아 하산시 |
| **제12회** | **‘06. 10. 19** | **한국 동해시** | 제24회 | ‘18. 08. 02 | 중국 훈춘시 |

회의내용은 물적교류 및 인적교류를 통한 회원도시 간의 경제 활성화와 우호증진에 관련된 내용으로 도시 간 관광상품 개발, 경제교역 규제완화 및 제도적 정비, 정보 공유,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등에 대해 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24회가 진행되는 중 동해시에서는 1996년, 2006년, 2016년 총 3회가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제25회를 맞이하는 환동해 거점도시회의는 10월 27일 일본 요나고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1) 동해시 제공자료

# 한국-극동러시아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2019년 화장품 및 세제 수출, 원유 수입 급증

극동러시아지역의 주요 수출입국은 한국(23.1억 달러, 비중 30%), 중국, 일본, 벨기에, 대만 순이며, 10대 수출입국 중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국가와의 교역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 장비 및 그 부품', '화장품, 세제', '식료품, 농축산 가공품' 등 이며, 그 중 '화장품, 세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107%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극동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만달러]

| 순위 | 수출품목(HS코드) | 2017년 | 2018년 | 2019년 1분기 | 증감율 |
|---|---|---|---|---|---|
| 1 | 기계, 장비 및 그 부품(84) | 46.2 | 15.2 | 2.6 | -27% |
| 2 | 화장품, 세제 등(33,34) | 2.9 | 3.4 | 1.5 | 107% |
| 3 | 식료품, 농축산 가공품(19-22) | 4.4 | 6.0 | 1.4 | 37% |
| 4 | 철강제품(72,73) | 8.1 | 5.8 | 1.3 | 22% |
| 5 | 플라스틱 제품(39) | 5.5 | 4.7 | 1.1 | 14% |
| 6 | 윤활유 등 석유제품(27) | 3.4 | 3.6 | 0.8 | 12% |
| 7 | 전기기기, 축전지 등(85) | 11.1 | 4.5 | 0.6 | -11% |
| 8 | 자동차(87) | 3.7 | 1.9 | 0.5 | 14% |
| 9 | 종이제품(48) | 2.4 | 2.3 | 0.4 | -7% |
| 10 | 화학물질, 약품(28-30) | 1.4 | 1.9 | 0.3 | -43% |
| 극동지역 총 계 | | 97 | 56 | 12 | 6% |

주 : 증감율은 전년 1분기 대비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수산물' 등 이며,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을 대폭 확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원유' 수입액이 11배 증가하였다. 이는 2019년 1분기 극동러시아지역 수입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극동러시아→한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만달러]

| 순위 | 수입품목(HS코드) | 2017년 | 2018년 | 2019년 1분기 | 증감율 |
|---|---|---|---|---|---|
| 1 | 원유(2709) | 351.8 | 591.5 | 132.2 | 11배 |
| 2 | 천연가스(2711) | 51.7 | 69.8 | 33.7 | 47% |
| 3 | 수산물(03) | 119.1 | 137.1 | 28.5 | 16% |
| 4 | 석탄(2701-2703) | 35.5 | 50.7 | 12.4 | 88% |
| 5 | 철, 철제품(72,73) | 17.6 | 25.1 | 3.9 | -38% |
| 6 | 석유제품(2710) | 17.7 | 19.9 | 2.4 | -35% |
| 7 | 목재, 목재제품(44) | 5.2 | 4.4 | 1.1 | 0% |
| 8 | 광석(26) | 5.2 | 5.0 | 1.0 | 0% |
| 9 | 사료 등(23) | 4.2 | 3.6 | 1.0 | -23% |
| 10 | 곡물(10-12) | 0.4 | 1.4 | 0.3 | - |
| 극동지역 총 계 | | 614 | 916 | 219 | 173% |

주 : 증감율은 전년 1분기 대비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 주변국 국제 동향

## 러시아 동향

###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철도 통합 서비스 개시[2)]

머스크(Maersk)사와 모듈(Modul)[3)] 운송사는 러시아의 육로와 해상터미널을 경유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항구를 연결하는 AE19 복합운송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최초의 해상 철도 통합 서비스이다.

머스크사는 한국과 일본의 가전제품과 자동차부품을 실은 컨테이너를 SCIO SKY사를 통해 연해주 보스토치니항의 VSC(Vostochnaya Stevedoring Company) 터미널에 입항하고, 이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PLP(Petrolesport) 터미널까지 운송된 컨테이너는 머스크사를 통해 폴란드의 그단스크항에 최종 도착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러시아 연해주 보스토치니항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18일이다. 이 기간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한 항로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의 AE19 서비스 노선도**

출처 : http://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00

### ■ 제5차 동방경제포럼과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동시 개최

9월 4~6일 3일간 열릴 제5차 동방경제포럼 행사의 일부로 6일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개최 될 예정이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은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결정들', '비즈니스를 위한 환경 조성', '극동과 아태지역 : 협력을 통한 성장가능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결정들'이라는 4개의 세션[4)] 으로,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새로운 가능성들의 행보'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포항에서 개최된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는 한국 17개 지방정부, 러시아 9개 지방정부가 모여 양국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동방경제포럼과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는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지 기대가 되고 있다.

---

2) 러시아 세관, http://www.tks.ru/logistics/2019/08/07/0006
3) 러시아 철도 포워더
4) 이즈베스티, https://iz.ru/912016/2019-08-20

# 정정안내

## 정정 안내

2019년 08월에 제작된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월간동향 vol.10호' 와 관련하여 정정 안내를 드립니다. 기고문 3페이지에 오탈자 및 명칭에 대한 수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위 치 | 변경 전 | 변경 후 |
|---|---|---|
| 두 번째 단락<br>1, 4번째 줄 |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인 동해신의 3단계 개발사업은 북방물류 거점항 기능 제고와 선박 체선율을 해소하고 원자재(시멘트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2016년 6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영동남부 주민들은 동해신 3단계 개발사업이 끝나면 산업원자재 수출입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인 동해신항의 3단계 개발사업은 북방물류 거점항 기능 제고와 선박 체선율을 해소하고 원자재(시멘트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2016년 6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영동남부 주민들은 동해신항 3단계 개발사업이 끝나면 산업원자재 수출입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
| 마지막 단락<br>2번째 줄 | 그러므로 민자유치가 불확실한 동해신항 민자 부두 4선석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기간 내에 완공하고, 동해항의 항만 분진 저감 및 항만 인근 송정동 주민 집단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전국 무역항 중 유일하게 항만배후단지가 없는 동해신항이 무역항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동해신항 육성 방향에 따라 조기에 항만배후단지(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대북교역 및 환동해권 북방물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그러므로 민자유치가 불확실한 동해항 민자 부두 4선석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기간 내에 완공하고, 동해항의 항만 분진 저감 및 항만 인근 송정동 주민 집단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전국 무역항 중 유일하게 항만배후단지가 없는 동해신항이 무역항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동해신항 육성 방향에 따라 조기에 항만배후단지(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대북교역 및 환동해권 북방물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독자 분들께 내용에 대한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기고문을 작성해주신 동해상공회의소 하종갑 회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호에서는 더욱더 알찬 내용과 발전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 매 장 정 보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추암길 198(추암동)
- 전　　화 : 1층 대게판매점 033)522-4774
  2층 식　　당 033)521-4776
- 영업시간 : AM 10:00~PM 21:00(연중무휴)
- 이용방법 : ①1층에서 러시아대게를 구입하시면
  ②1층에서 대게를 쪄서 2층으로 올려드리니
  ③2층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 대게가격 : 수입가격에 따라 변동

※택배가능합니다